

트라이앵글 트리니티: 미얀마-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의 역사와 정치*

현시내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 연구교수

이 논문은 미얀마-태국-라오스의 국경이 접한 '골든 트라이앵글'과 태국-라오스-캄보디아 국경이 접한 '에메랄드 트라이앵글'의 역사와 정치를 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가 주장한 국민, 군부, 정부의 "삼위일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이는 2025년 주목받았던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 및 스캠 범죄의 원인과 영향의 역사적 연원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다. 트라이앵글의 지역 형성과 발전의 역사를 먼저 알아보고, 식민주의 시대부터 디지털 시대까지 트라이앵글 지역에서의 갈등 과정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지회복주의 운동에서 나타난 국수주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 지하 경제로 영향력을 유지한 군부, 그리고 정권교체 시기 안보 위기라는 수사 정치에 의존하는 정부가 국경지대에서 범죄와 분쟁의 공생 관계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트라이앵글 지역에서의 분쟁과 범죄를 지속하는 국민, 군부, 정부의 삼위일체를 지배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어 골든 트라이앵글,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삼위일체론, 국경 분쟁, 스캠 범죄

I. 서론: 삼각지 분쟁의 삼위일체

“당시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견해가 터무니없이 여겨지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 견해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Clausewitz, 1989: 616)

1780년 프로이센에서 태어난 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가 쓴 『전쟁론(On War)』은 유럽뿐만 아니라 신대륙 아메리카에서도 전쟁에 임하는 국가 전략이자 이론으로 인정받았고, 지금까지도 군사(軍史)를 연구하는 다수의 학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6B5A01004124).

자에게 고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대규모 결투(duel)”라고 정의하는데, “역설적 삼위일체(Paradoxical Trinity)”가 “결투”를 총체적 현상으로 만든다고 한다. 그는 이 “역설적 삼위일체”를 원초적인 폭력, 증오, 적개심으로 무장된 국민(people), 창의성이 자유롭게 발휘될 가능성과 기회를 얻게 되는 지휘관과 군대(commander and his army), 그리고 정책적 수단으로서 이성적 측면에 집중하는 정부(government)라고 규정했다(1989: 75, 89).¹ “삼위일체론”이라고도 불리는 이 세 요소는 전쟁이라는 행위에 참여하는 국민, 군부, 정부라는 주체뿐만 아니라 이들이 개별적으로 취하는 행위가 전쟁의 총체적 성과 혹은 영향력을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총 6권으로 이루어진 전쟁론을 마무리하며 그는 전쟁이 “정책 수행의 다른 수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1989: 69). 즉 전쟁은 정치에 의해, 그리고 정치를 위해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세기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역설적 삼위일체”는 2025년 주목받았던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국경 분쟁과 범죄의 필연적 공존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분석 틀을 제시한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의 범죄와 분쟁은 식민지 시대부터 냉전을 거쳐 디지털 시대까지 한 세기가 넘게 축적되어 온 역사적 유산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문제다. 사람과 물자가 빈번하게 드나드는 국경 지역에서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군인, 경찰과 같은 무력이 배치되고, 국경 검문소와 같은 출입국 통제 시스템을 확대하면서 접경지역에는 개방성과 폐쇄성이 공존해 왔다. 특히 20세기에 들어 대륙부 동남아시아 접경지역에는 밀수와 인신매매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범죄가 존재해 왔고, 이를 막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종종 분쟁 혹은 무력 충돌의 근거가 되어 왔다. 최근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온라인 사기 범죄, 즉 스캠 범죄의 등장과 성장 배경에도 폐쇄성과 개방성이 공존하는 국경지대의 역사적 특수성이 있다.

스캠 사업이 최근 주목을 받으면서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범죄

¹ 클라우제비츠의 “역설적 삼위일체(paradoxical trinity)”에 대한 해석과 번역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류제승은 paradoxical trinity를 “경이로운 삼위일체”로 번역하고 있다(클라우제비츠, 1998: 57). 이 논문은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의 본질이 증오와 폭력과 같은 감정적인 면과 정책적·정치적 판단이라는 이성적 측면, 그리고 개별 사령관과 군부의 특징과 같은 우연성이 상호작용하는 현상이라는 주장과 전쟁이 정치의 연속이라는 뉘앙스를 살려 “역설적 삼위일체”로 해석한다.

지대에 관한 연구 및 보도가 증대되었다. 이 신종 사이버 범죄와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중국계 자본과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국가 간의 경계에 있는 초국가적 범죄 지대 공간을 “회색 경제특구(Gray Special Economic Zones)”, 혹은 “다크 조미아(Dark Zomia)”로 정의하는 연구가 그에 속한다.² “회색 경제특구”는 중국의 대(對)동남아시아 투자 정책과 더불어 확장한 중국 자본이 주도한 범죄 네트워크가 “경제특구”라는 해외투자 유치, 수출 경제 중심, 개발 촉진 경향성, 혁신 주도형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번창한다는 점에 주목한다(Ho et al., 2025). “다크 조미아” 역시 중국 자본과 범죄 네트워크가 집중된 “비국가적(non-state)” 공간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주권의 충돌(friction of sovereignty)”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국경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국경 지역이 내재한 복합적 모순성에 대해 논의한다(Laungaramsri, 2024).

비슷한 맥락에서 국경지대의 취약점을 활용한 범죄 산업에 집중한 연구자들은 “복합단지 자본주의(compound capitalism)”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소규모로 운영되던 스캠 사업이 국가 주도형 산업화 과정에서 약탈적 자본(predatory capital)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추적한다(Franceschini et al., 2023). 스캠 산업의 성장과 확산이 지역 내 유력 인사 혹은 세력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이익 창출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스캠 도시”(scam cities)와 “스캠 지대(scamlant)”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Watanabe, 2026; Ruser, 2025). 이러한 신종 범죄의 원인과 거점을 찾는 노력이 학계와 언론계에서 진행되던 가운데, 최근 ‘스캠’과 ‘캄보디아’를 합쳐 만든 “스캠보디아(Scambodia)”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캄보디아인들의 민족주의적 저항을 극대화시켰다. 스캠이라는 불법 온라인 사업이 한 국가의 경제적 지위와 국제적 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 원인을 국외 자본과 범죄 네트워크가 집중되는 공간의 특수성을 통해 밝힌 것이다(Steinhauser and Kowsmann, 2026).

이처럼 대륙부 동남아시아 국경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와 분쟁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범죄와 분쟁 발발에 영향

²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은 조미아(Zomia)를 “베트남의 중부 고원에서 시작하여 대륙 동남아시아 5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과 중국의 네 지방(윈난, 구이저우, 광시, 쓰촨성 일부)을 가로지르며 인도 동북부까지 뻗어 있는 해발 300미터 이상의 고지대를 일컫는 새로운 용어”라고 정의한다(스콧, 2015: 15).

을 미친 당대적 조건과 환경을 국가 단위로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범죄와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당대적 이해관계가 “국경”이라는 공간과 끊임없는 조우를 통해 만들어진 초(超)국경적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의 접경지역에서 분쟁을 촉발하고 지속하는 기제인 국민, 군부, 정부의 역할과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례를 연구하면서 범죄와 분쟁이 공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관계를 밝힌다.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것처럼 전쟁과 같은 대규모의 결투를 주도하는 국민, 군대,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은 서로 다르면서도 겹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개별 국가의 국민-군부-정치 주체자의 특수성을 비교하기보다는 트라이앵글 지역의 분쟁을 촉발하고 유지하는 “삼위일체”의 요소로 실지회복주의(irredentism) 운동에서 나타난 국수주의(국민), 혼란과 위기 속에서 자란 지하 경제(underground economy)를 통해 유지된 군부(junta), 그리고 정권교체 시기 안보 위기에 의존하는 수사(rhetoric) 정치(정부)가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에 주목하여 삼위일체론의 주체자와 행위의 보편성을 살펴보려 한다.

주요 분석 대상은 미얀마-태국-라오스의 국경이 접한 ‘골든 트라이앵글’과 태국-라오스-캄보디아 국경이 접한 ‘에메랄드 트라이앵글’이다. 골든 트라이앵글과 에메랄드 트라이앵글의 공통점은 해발 300미터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강이 흐르는 저지대로 내려오는 중산간 지역을 포괄한다는 점이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부터 대륙부 동남아시아 북부 지역으로 이어진 고산지대와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저지대를 연결하는 중산간지대는 역사적으로 초국가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다국적, 다민족이 모이고 다양한 상품이 교환되고 거래됐다. 19세기와 20세기 사이 서구 식민제국과 중국 간의 대결 관계에서 국경이 획정되면서 대륙부 동남아시아는 현재의 국경선으로 나뉘게 되었지만, 식민주의 시대부터 산과 강을 따라 만들어진 자연적 경계뿐만 아니라 자원이 집중된 지역에 대한 제국 간의 경쟁 끝에 만들어진 전략적 경계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게 되면서 분쟁과 충돌은 이미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골든 트라이앵글과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간의 차이점은 전자가 냉전 시기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초국가 무역 중심지였다면, 후자는 탈냉전 시기 평화적 공존과 관광산업에 대한 개발 협력을 목표로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



출처: East West Center(이미지 필자 편집)

그림 1 골든 트라이앵글과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위치

진 삼각지라는 것이다.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주도로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GMS)이 시작되면서 소지역 경제협력 체제(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가 도입되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태국-미얀마-라오스 접경지역이었던 골든 트라이앵글을 포함한 5개의 트라이앵글이 떠오르기 시작했다(Ishida, 2012: 1, 11).

그중 에메랄드 트라이앵글은 20세기 후반 베트남 전쟁을 비롯한 라오스, 캄보디아의 뜨거운 내전이 펼쳐졌던 곳이고, 1975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공산화로 수만 명의 전쟁 난민이 태국으로 피난을 가는 길목이었다. 2000년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사업이 시작된 배경에는 수십 년간의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다양한 국경 분쟁으로 산업화가 더딘 이 지역에 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보자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2012). 그럼에도 21세기에 들어 격화된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분쟁으로 그 존재 이유가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Hatsukano, 2012: 32).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이들 트라이앵글 지역 형성과 발전의 역사를 먼저 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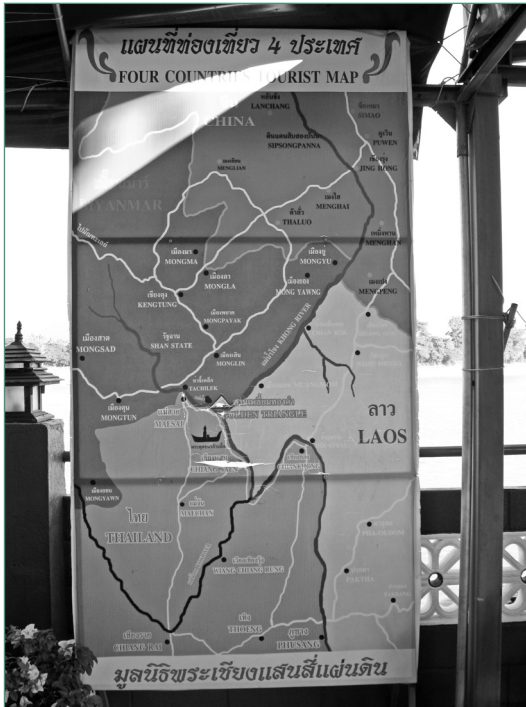
보고, 식민 통치가 본격화한 19세기 말부터 최근까지 트라이앵글 지역을 둘러싼 군사적·경제적·정치적 갈등을 살펴본다.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의 전통 왕조 국가 간의 교류의 역사가 깊고 지속적이었던 만큼 이 지역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고 많지만,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지역의 역사는 주변국 간의 교류가 분절적이고, 지역의 문화·역사에 관한 연구가 고대와 근대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국경 범죄와 분쟁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역사적 배경 서술에 집중하였다. 이 역사적 배경 서술에 이어 삼각지에서 분쟁과 범죄의 상호 관계를 역사적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서 국경 분쟁의 필연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는 국수주의, 군부 경제, 그리고 안보 정치에서 드러난 이해 당사국 내에서의 정권 유지 혹은 교체를 위한 노력들이 국경 지역에서의 충돌로 확장되게 된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휴화산처럼 존재하는 국경 분쟁의 역사적 과정이 당대적·정치적 어젠다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II. 접경지역에서 우범지대로

1. 골든 트라이앵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이전부터 고산지대에 거주하던 공동체와 보부상들이 모여 다양한 물건을 거래하던 황금 삼각지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의 영토가 만나는 메콩강을 둘러싼 지역을 가리킨다. 14세기 명 왕조의 해금 정책으로 해상무역을 통제되던 시기에 중국 남부의 원난과 미얀마, 인도, 태국,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지역 간의 카라반과 보부상의 이동이 증대되면서 육로를 통한 무역이 활발해졌다. 특히 지리적으로 원난과 가장 가까운 미얀마는 무역상들뿐만 아니라 정치적 망명자들까지 드나들고 정착하게 되는 안식처이자 피난처이기도 하다(Forbes, 1987: 2).

원난과 태국 북부 지역의 무역로 중 원난의 쓰마오(Ssumao 혹은 Simao, 현 푸얼시 Pu'er), 산(Shan)의 켁퉁(Keng Tung), 치앙라이의 메사이(Mae Sai)를 잇는 길이 원난



출처: 필자 제공

그림 2 치앙라이 골든 트라이앵글 진 입로에 있는 지도 사진

과 태국 북부 지역 간 카라반 무역의 동맥 역할을 했다. 그 덕분에 태국-미얀마-라오스 국경이 맞닿아 있는 치앙센(Chiang Saen)이 훗날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무역상들의 집결지로 성장하게 된다. 원난 수출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은 비단과 아편이었고, 주요 수입품은 면직물과 차였다. 19세기 중반부터 영국령 인도에서 수출하는 아편량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원난에서 아편 재배가 늘어나고, 덩달아 미얀마 산주에서 재배된 아편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에서의 아편 판매가 힘들어지자, 원난과 산주의 아편은 지금의 골든 트라이앵글로 몰리게 된다(Forbes, 1987: 19-23).

18세기 중반 인도 정복을 완수한 영국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진출 교두보로 미얀마를 정하고, 세 차례의 전쟁을 통해 60년 만에 미얀마 합병에 성공한다. 1886년 영국령에 합병된 산주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도 탐내던 중국 진출의 핵심 전초기지였다. 이렇게 19세기 말 산주는 영국령으로, 그 이웃인 치앙마이는 시암(Siam, 태국)령으로 편입되면서, 영국과 시암 간의 영토분쟁의 씨앗

이 뿌려진다. 다만 영국이 미얀마 정복과 원난 진출에 집중했기 때문에, 시암은 영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태국과 프랑스 간의 국경선 분쟁이 재점화되면서 바뀌기 시작한다. 프랑스와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영토분쟁으로 고민하던 태국 총리 피분 송크람은 1941년 12월에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1942년 1월에 미국과 영국에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태평양 전쟁에서 태국과 일본의 공조는 1940년 12월에 재점화한 프랑스와의 영토분쟁에서 비롯되었다. 이미 베트남에 진입한 일본이 1941년 1월 태국과 프랑스 간의 정전협정을 주도했고, 이를 통해 태국은 프랑스로부터 라오스와 캄보디아 영토 일부를 되찾게 된다(Flood, 1969: 324; Kasetsiri, 1974: 49-50). 이에 자신감을 얻은 태국은 영국에게 뺏겼다고 여겼던 산주를 수복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1942년 3월 피분 송크람 총리는 일본에 태국군의 산주 원정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고, 그해 6월 핀 춘하완(Phin Chunhawan) 사령관을 위시한 파얏(Payap) 원정군은 산주의 핵심 거점지역인 깡똥을 점령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피분 송크람 총리와 태국 정부가 산 점령을 정당화했던 근거는 산주의 사람들이 타이족의 일원인 “타이야이”라는 데 있었다. 결국 1945년 일본의 패배와 항복 이후 태국 정부는 미국과 영국에 대한 전쟁 선포를 철회하면서, 산주 역시 영국에 돌려주게 된다.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 초대 총리였던 우 누(U Nu)는 불교식 사회주의를 주창했고 바마(Bama, 버마) 민족 중심의 미얀마 통일을 추진했는데, 이에 저항하던 버마 공산당을 비롯한 다수의 소수민족과의 내전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던 차에 1949년 중국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하면서 국민당을 지지했던 중국인들의 대량 이주가 시작되었다. 대만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51년 말 약 1만 4,000명의 국민당군이 산주로 이주한다. 국민당군 다수가 공산당에 대한 저항을 지속하기 위해 게릴라군이 되거나 민병대에 들어갔고, 이들과 함께 이주한 원난 출신 민간인 일부도 저항군에 합류했다. 이에 대만에 있던 국민당 정부와 미국은 이들에 대한 재정적·군사적 지원을 시작했다(Chang, 2002: 129-130).

다수의 원난 출신 중국인들과 국민당 잔류군이 미얀마의 산주로 유입되자 미얀마 정부뿐 아니라 태국 군부 역시 경계했다. 그러나 냉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데 국민당 잔류군이 반공 게릴라 세력으로 활동하며 대만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 태국 군부는 이들의 태국 이주와 정착을 허용한다. 그 결과 치앙라이의 메살링(Mae Salong) 지역, 치앙마이외의 팡(Fang) 지역에 국민당 잔류군 다수가 정착했고, 이들이 군자금 마련을 위한 아편 무역을 지속하면서 냉전 초기 골든 트라이앵글은 다시 전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된다(Kaufman, 2001: 454-455).

2.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2000년 6월 캄보디아의 제안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국경지대의 관광과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협력 프로젝트인 “에메랄드 트라이앵글”이 시작된다. 골든 트라이앵글과 비슷하게,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지역은 냉전 시기부터 지금까지 태국과 캄보디아 무력 충돌의 핵심지역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캄보디아의 프레 비히르(Preah Vihear) 사원이 있는 프레 비히르주, 메콩강을 따라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똥 트렝(Stung Treng)주, 최근 국경 분쟁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른 따므안툼(Ta Muen Thom)과 따끄라베이(Ta Krabey) 사원이 위치한 옷더민찌이(Oddar Meanchey)주가 에메랄드 트라이앵글에 포함된다. 나머지 지역은 냉전 시기 공산주의 지지자와 반공 세력 간의 치열한 대결이 이어진 태국의 시사켓(Sisaket)주와 우본 랏차타니(Ubon Ratchathani)주, 라오스의 사라완



출처: OpenStreetMap(이미지 필자 편집)

그림 3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Salavan)주와 찰빠삭(Champassak)주다(Hatsukano, 2012: 32). 에메랄드 트라이앵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인접 지역인 반페이 민찌이(Banteay Meanchey)주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외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진 뽀이뻏(Poipet)이 이 주에 있는 국경도시다.

앞서 언급했듯 골든 트라이앵글의 역사가 고대 시대부터 전통 왕조 국가 간의 교역 관계로 시작하여 교류와 접촉의 역사가 길고 기록도 다수 존재하지만, 에메랄드 트라이앵글은 지역의 주도권을 쥐었던 전통 국가 간의 흥망성쇠 시기가 달라 직접적인 접촉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그래서 골든 트라이앵글처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분쟁의 씨앗이 뿌려진 시기는 18세기로 볼 수 있다.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던 크메르 제국이 15세기 중반에 몰락하고, 중국 원난 남부 지역부터 태국 동북부 지역, 베트남의 안남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라오스의 란상 제국이 18세기 초 세 개의 왕국으로 분열하면서 현 라오스와 캄보디아 영토에 대한 미얀마, 태국, 베트남 왕조 간의 경쟁이 심화했다. 특히 캄보디아 영토를 둘러싼 시암의 짜끄리 왕조와 베트남의 응우옌 왕조 간의 대결은 시암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 응우옌 왕조를 지원하던 비엔티안 왕국의 도움으로 1828년에 일단락되었고, 응우옌 왕조는 남부 지역의 찰빠(Champa)와 캄보디아 영토 일부를 합병할 수 있었다(Briggs, 1946: 441-443). 하지만 프랑스가 코친차이나를 식민지로 병합하고,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보호령으로 지정하면서 시암의 대결 상대는 프랑스가 된다.

프랑스와 시암 간의 영토분쟁은 프랑스가 베트남,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걸쳐 인도차이나령을 확장해 나가던 19세기 말부터 본격화했다.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메콩강 서부 지역으로의 확장을 꾀했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으로 참전한 시암은 1926년 협약을 통해 프랑스의 진출을 저지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1940년 6월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9월 일본이 베트남을 침략하여 비시(Vichy) 정부를 위협하는 것을 본 피분 송크람(Phibun Songkhram) 총리는 프랑스의 위기를 태국의 영토 회복 기회로 전환하려 했다(Flood, 1969: 304).

1940년 12월 프랑스군과 태국군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교착 상태에 빠지자마자 일본의 중재 제안으로 1941년 2월 3일 사이공 앞바다에 정박한 일본 함선에서 휴전이 선언되었다. 1941년 5월 9일, 도쿄에서 프랑스와 태국 간

의 평화 조약이 체결되면서 태국은 1900년 이전 시암의 영토 회복을 보장받았고, 그 결과로 라오스의 사이야부리(사야부리, Sainyabuli), 짬빠썩, 캄보디아의 바탐방(Battambang), 시엠 립(Siem Reap)과 그 주변의 반떼이 민찌이(Banteay Meanchey)주, 웃더민찌이(Oddar Meanchey)주, 프레 비히르 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Katsetsiri, 1974: 49-50).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인도차이나령을 재탈환하려는 프랑스와 베트남 간의 독립전쟁이 이어졌고, 1954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종전 직전 프랑스는 보호령이었던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1953년에 먼저 독립시킨다. 이를 지켜보던 태국은 일본의 패배로 중단된 잃어버린 영토 수복 캠페인을 이어가기 위해, 캄보디아 독립 직후 프레 비히르 사원을 점령한다. 이에 따라 촉발한 국경 분쟁에 대해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1904년, 1907년 프랑스 식민 통치 시기에 만들어진 조약과 지도를 기반으로 이 사원 지역을 캄보디아 영토로 인정하게 된다(Alderman, 2025).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획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이다.

캄보디아의 론 놀(Lon Nol) 육군참모총장은 1970년 3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캄보디아에는 잠시나마 공화국이 세워진다. 베트남 전쟁으로 혼란이 거듭되는 중 1975년 론 놀은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주에게 밀려 후퇴를 거듭하는데, 론 놀이 이끌던 캄보디아 국군이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지역이 바로 프레 비히르 사원이 있는 곳이다. 결국 이곳은 그해 5월 말 크메르루주에 함락되지만, 이후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 집단학살(Cambodian Genocide)”로 알려진 크메르루주 정권의 대량 학살과 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1978년 12월 캄보디아를 침략한 베트남군을 피하고자 수만 명의 캄보디아인들이 당렉(Dangrêk) 산맥을 거쳐 태국으로 피난을 간다.

1979년 베트남에 의해 세워진 괴뢰정권인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은 폴 포트가 당렉 산맥 지역에서 세력을 규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에 대량의 지뢰를 매설했다(Wee, 2025). UN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9년 6월 8일 태국 정부는 4만 5,000여 명의 캄보디아 피난민들을 총구로 몰아 다시 캄보디아로 쫓아내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가 지뢰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다. “당렉 집단학살(Dangrek Genocide)”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

이 일어날 때 소환되는 사건이다(Hinton, 2006: 462; Shawcross, 1985: 88-92). 2025년 7월 태국 군인이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었을 때, 캄보디아가 1980년대에 매설된 지뢰라고 주장한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Reuters, 2025/07/22).

실제로 2025년에 재점화한 국경 분쟁에서 양국이 집중했던 부분이 바로 지뢰 문제다.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1997년 오타와(Ottawa) 협약으로 알려진 대인지뢰 사용 금지 조약국이다. 2008년 프레 비히르 사원을 두고 일어난 분쟁이 2009년에 소강상태에 접어드는데, 그해 4월 태국 군인이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으면서 재개된다(BBC, 2009/04/03). 2025년 5월 무력 충돌 이후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분쟁 역시 7월 23일 캄보디아 접경지역인 태국의 우본 랏차타니(Ubon Ratchathani)주에서 태국 군인이 지뢰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 그다음 날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무력 충돌이 재개된다.

캄보디아 측은 이 지뢰가 1979~1980년 인도차이나 전쟁과 크메르루주 진압 여파로 남은 지뢰라고 주장했다(Wongcha-Um and Ghoshal, 2025). 이에 태국은 곧 외교원과 기자로 구성된 지뢰 조사단을 구성해 파견했고, 조사 과정에서 분쟁지역에 매설된 지뢰 중에 러시아산 PMN-2형 지뢰를 발견하여 캄보디아가 오타와 협약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한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5). 결국 그렇게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은 재개되었다. 그러던 가운데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중재로 7월 28일 정전을 선포하고 10월 평화협정에 서명했지만, 11월 10일 다시 지뢰 폭발 사고가 나자, 태국의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총리는 평화협정 이행 중단을 선포한다(Regan and Olarn, 2025).

III. 실지회복주의(Irredentism) 운동과 국수주의

지리적으로 골든 트라이앵글과 에메랄드 트라이앵글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이 지역의 역사는 태국의 피분 송크람 총리가 주도했던 “실지회복주의(irredentism) 운동”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1932년 절대왕정을 종식하고 입헌군주제를 세웠던 인민당 혁명의 주역이었던 군인 피분 송크람은 1938년에 총리가 되었다. 당시 피분에게 가장 큰 숙제는 절대왕정의 유산을 타파하고 타이

민족 중심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는 12개로 구성된 피분 송크람의 “문화 명령(랏니옴, Ratniyom)”이라는 국가주의 정책에 잘 드러나 있다(Numnonda, 1978: 235). 그 첫 번째가 1932년 혁명 6주년 기념일에 발표되었는데, 국명을 “시암”에서 “타이의 나라”라는 의미가 있는 “쁘라텃 타이(Prathet Thai)”로 바꾸는 것이었다.

시암과 달리 특정 민족의 종족성이 강조된다는 비판에 대해 피분은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타이인의 대통합을 꾀하여 외세의 침략으로 축소된 대타이제국을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타이제국을 재건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 “실지회복주의(irredentism)” 혹은 “잃어버린 영토(시아딘텐, sia din daen) 회복” 캠페인이다. 실지회복주의 운동의 첫 번째 목표는 19세기 말부터 영국과 프랑스에 내어준 산주와 캄보디아, 라오스의 영토다.

잃어버린 영토 회복 캠페인의 목표는 단순히 영토 수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캠페인을 주도하는 정부에 대한 지지를 타이인들의 민족주의 고양을 통해 높이는 데 있었다(Kasetsiri, 1974: 56; Numnonda, 1978: 245). 이를 위해 피분은 이전 짜끄리 왕조의 영광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던 선동적 작가인 루앙 위췌와 타칸(Luang Wichit Wathakan)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태국의 대표적 친일파였던 위췌와 타칸은 이미 라마 6세 재위 시기부터 외세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타이족의 용기와 희생에 관한 작품을 써왔고, 피분 재임 시기에도 문화 명령 뿐만 아니라 태국의 국수주의를 고취하는 다양한 작품들과 정책 생산에 앞장섰다.

1940년 12월 태국군과 프랑스군 간의 교전이 시작된 순간부터 휴전이 체결된 1941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태국에서는 역사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열광적인 반프랑스 시위가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에서부터 상인, 노동자, 심지어 무슬림과 화교계 시민들을 거리로 이끌었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자신들을 서구 열강의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전사”라고 불렀고, 위췌와 타칸은 이들의 열정을 실지회복주의 운동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Barmé, 1993: 167). 이러한 대중적 열광은 프랑스와의 영토분쟁을 통해 타이 민족주의의 고양뿐만 아니라 피분 정권의 정당성 강화에 기여했고, 이에 응답하기 위해 피분은 실질적인 영토 수복을 위한 정치적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다. 일본의 진주

만 공격 직후 1941년 12월 8일 오전에 피분 내각은 태국 영토 내에서의 일본군 통행권을 보장했고, 12월 21일 도쿄에서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난 뒤, 1942년 1월 25일에 미국과 영국에 전쟁을 선포했다. 그렇게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영국령에 속했던 산주와 프랑스 인도차이나령에 속했던 다수의 영토를 수복할 수 있었다.

산주에 파병된 군대, 이들을 방콕에서 지휘하고 있던 군부, 그리고 시위를 위해 거리로 나섰던 이들 모두에게 공통된 목표는 태국의 잃어버린 영토 회복과 그곳의 거주민들을 태국의 국민으로 만드는 것도 포함했다. 피분은 태국에 거주하는 타이족을 “대타이족”으로,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는 물론 중국 남부에 거주하는 타이계 민족들을 “소타이족”으로 규정했다(Strate, 2015: 48; Barmé, 1993: 126; Terwiel, 1991: 141). 그는 대타이든 소타이든 모두가 하나의 대타이 민족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주를 점령하고, 1942년 9월 “타이 연합국”을 수립했다. 이에 태국 언론은 껥똥에 거주하는 “산” 혹은 “타이야이”가 태국의 대타이족과 언어·문화·종교적 전통을 공유하는 동일 민족 집단이라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타이 연합국의 행정을 담당했던 군사령관도 산(타이야이)이 순수한 타이계 혈통을 지닌 불교 신자이며 타이어로 소통할 수 있어서 이들에 대한 점령과 통치가 수월했다고 주장했다(Chunhawan, 1973: 71-72).

피분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기꺼이 동참했던 가장 열렬한 선전전이었던 태평양 전쟁 시기 잃어버린 영토 회복 운동은 결과를 놓고 보면 성공적이었으며, 태국 국민에게 영토에 기반한 국수주의적 감정을 심화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당시 태국 국민들은 자신을 “전사”로 여겼고, 국가를 위해 싸우고 죽는 것이 태국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으로 인식하게 되는 군사적 민족주의를 영토분쟁과 실지회복주의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했다(Barmé, 1993: 167). 이렇게 대중적 선전전과 일본과의 공조로 “수복”한 영토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반환해야 했을 때 태국군과 태국인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는 여전히 태국에서 국경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소환하는 “잃어버린 영토(시아딘텐)” 슬로건을 통해서도 증명된다(Im, 2026).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성장해 온 동남아시아에서 문화유산을 둘러싼 분쟁은 심심치 않게 계속 이어져 왔다. 특히 국경 획정이 복잡하게 이루어진 대륙

부 동남아시아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은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국가 간의 분쟁을 심화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태국 배우가 앙코르 와트가 태국의 문화유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캄보디아인들이 프놈펜의 태국 대사관을 불태운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 1953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유 분쟁이 이루어졌던 프레 비히르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2008년이다. 2006년 쿠데타로 탁신 친나왓이 쫓겨난 가운데 훈센은 유네스코에 프레 비히르 사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고, 유네스코는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프레 비히르를 캄보디아 소유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당시 사막 순타라웻(Samak Sundaravej) 정부에 저항하던 국민민주주의연대(PAD)는 캄보디아 정부가 프레 비히르 사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를 태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 문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유네스코가 사원을 캄보디아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직후 2008년 7월에 사원에 태국 국기를 꽂으려던 태국인 3명을 캄보디아 경찰이 구속하면서 프레 비히르 사원 주변에 태국 군인 숫자가 증대되기 시작한다. 그해 10월 국민민주주의연대는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으로 이동해 영토 수복 선전전을 이어갔고, 결국 태국인과 캄보디아인들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Pongsudhirak, 2011). 무력 충돌은 2011년 말까지 지속되다가 양국의 합의로 군대가 철수되면서 일단락된다. 그리고 2013년 국제사법재판소는 1962년 결정이 유효함을 확인하면서, 태국에게는 국경 분쟁 해소를 위한 국제기구의 간섭을 불신하게 되는 계기를 다시 한번 마련하게 된다(United Nations, 2013).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을 둘러싼 일련의 역사적 분쟁은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제시한 국민과 국수주의의 역할을 상기시킨다.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이 성사되고 유지되는 데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이유는 “가장 잔혹하고 거의 본능적인 중요심조차도 적대적인 의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 적대심이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1989: 76). 삼위일체론의 ‘국민’이라는 주체는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그 지역이 ‘타이’라는 민족 공동체의 영토이고, 이를 보존하는 것이 타이족의 의무라는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주변

국 간의 영토분쟁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이렇듯 태국에서 잃어버린 영토 서사는 타이 국민의 증오심과 적대심을 전쟁으로 전환하는 촉매제를 제공해 왔고, 역시 2025년 분쟁 과정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2025년 초 따므안툼(Ta Muen Thom) 사원을 찾은 캄보디아 관광객들이 캄보디아 국가를 부르는 것을 태국 군인들이 저지하면서 국경 분쟁이 재점화되었다.

IV. 지하 경제와 군부의 공생관계

골든 트라이앵글이나 에메랄드 트라이앵글에는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범죄 산업과 네트워크 역시 발달한 곳이다. 특히 국경지대에는 군인이거나 경찰과 같은 공권력이 집중하는데, 이들이 범죄자들과 연결되면 범죄 산업 자체가 정치적·경제적 수익모델이 되어 분쟁의 원인을 끊임없이 재생산한다(Watanabe, 2026: 14-15).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골든 트라이앵글의 아편 무역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50년 중국 공산당이 원난성을 점령하고 아편 재배를 전면 금지한 이후, 국민당 게릴라군과 민병대(militia)는 반공 투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얀마 산주에서 생산한 아편을 운송하는 카라반 무역상을 경호하거나 재배와 판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Kaufman, 2001: 454-455; Lintner, 2022). 1950년대 국경 지역에서의 국민당 게릴라군과 민병대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산주 아편의 유통경로를 보호했던 태국 경찰청장 파오 시아논은 아편 무역을 통해 정계에서 권력을 축적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었다(McCoy, 2003: 169, 179-192). 그렇게 골든 트라이앵글에서의 국경 범죄는 공공연한 비밀이자 권력 확장의 자원이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다.

1978년 중국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1992년 공산권 붕괴와 함께 세계화 시대가 본격화하고, 골든 트라이앵글에서의 국경 범죄 양상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원조 사업들이 “경제특구”라는 이름으로 동남아시아에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감시의 끈이 느슨한 접경지역에서 신종 범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는 라오스 국경지대에 들어선 중국의 카지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경제특구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후원한 사업이지만, 라오스 국경 지역에 들어선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2007년 홍콩 출신의 자오 웨이(Zhao Wei)라는 도박왕이 전 라오스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라오스 정부와 99년 임대계약을 하면서 만들어진 곳이다. 이곳에 세워진 킹스 로맨스(Kings Romans) 카지노를 비롯한 “리틀 차이나”는 중국과 라오스에서는 불법인 도박, 매춘, 밀수, 밀매의 온상지로 알려져 있다(Ho et al., 2025: 1613-1614). 라오스 경찰이 있지만, 그들과 함께 사영 경비 업체 직원들도 상주하고 있어 불법행위가 일어나도 통제되지 않는다(Schearf, 2012;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2025: 33).

골든 트라이앵글을 시작점으로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이 맞닿은 지역은 미얀마 스캠 산업의 최대 집결지가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국경경비부대(Border Guard Forces)가 있다. 2009년 미얀마 군부독재 정권은 무장투쟁으로 인한 안보 문제를 해소하고, 2010년 총선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 소수민족 무장단체(EAO)와 정전 협정을 맺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이들 무장단체, 특히 지방의 민병대 다수를 국경경비부대로 재편했다. 이들은 반정부 투쟁을 멈추는 대신 일반 국군처럼 월급과 보급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지역 내에서의 사업 이권을 군부에 의해 보장받게 되었다. 그렇게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총 23개의 국경경비부대가 카친(Kachin), 산, 카야(Kayah), 카인(Kayin)주에 조직되었고, 이들은 분쟁이나 범죄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배치되었다(Buchanan, 2016: iii, 19, 24-25).

문제는 이 국경경비부대가 위로는 미얀마 군부독재 정권, 아래로는 주둔 지역 내 사업가와의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범죄 확대를 조장했다는 점이다. 이는 2021년 2월 1일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이미 쿠데타 직후 반 쿠데타 투쟁을 선언했었던 삼형제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으로 알려진 라카인군(Arakan Army), 전 공산당 출신의 병력이 만든 미얀마 민주동맹군(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과 탕 해방군(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은 2023년 10월 27일 산주 북부 지역의 꼬까잉(Kokang)에서 미얀마 군부정권에 대한 무력투쟁을 선포했다. “1027작전”으로 불리며 현재 진행 중인 이 무력투쟁의 시작도 군부 쿠데타 이후 우후죽순으로 확대되던 스캠 범죄가 그 주요 원인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중국의 일대일로(BRI) 프로젝트가 초국가 범죄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자 중국 정부가 삼형제동맹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 내전의 재개로 이어진 것이다(Michaels, 2023; Ho et al., 2025: 1610).

그렇게 산주에서 번창하던 스캠 사업이 붕괴하자 스캠 사업자들이 중국과는 멀리 떨어지고, 미얀마 군부의 힘이 강력한 지역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곳이 미야와디(Myawaddy)주의 슈웨 꼭꼬(Shwe Kokko) 지역이다. 지린성 창춘시에 기반한 야타이 그룹(Yatai Group) 회장 쉘 지지앙(She Zhijiang)은 중국 후난성 출신인데, 2012년 중국에서 온라인 도박 사업을 하다가 쫓겨난 뒤, 2015년 캄보디아에 자리를 잡고 중국기업들의 도박 사업을 돕던 중, 2017년 캄보디아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태국 딱(Tak)주 맞은 편인 미얀마 미야와디주의 슈웨 꼭꼬 지역의 주택 단지 개발 사업을 떠난다. 슈웨 꼭꼬 지역은 불교 신자 카렌인 국경경비부대의 영향이 막강한 곳이었다. 쉘이 단시간에 미얀마에 스캠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경제특구가 있었고, 무엇보다 국경경비부대가 쉘과 같은 중국 본토 출신의 외부 기업의 투자를 지원했기 때문이다(Justice for Myanmar, 2024; The Irrawaddy, 2025/10/29; Laungaramsri, 2024: 466-468; Watanabe, 2026: 19-21).

2019년 캄보디아 정부가 시아누크빌 중심으로 퍼져 나가던 온라인 사기 범죄 단속을 강화하자, 쉘은 미얀마로 이주해 슈웨 꼭꼬에서 자신만의 스캠 제국인 KK 파크를 건설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역시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던 미얀마 정부도 2020년 슈웨 꼭꼬에서 야타이 그룹의 개발사업을 중단시킨다(Ewe and Head, 2025). 곤경에 빠진 쉘을 구해준 것이 바로 2021년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이 일으킨 군부 쿠데타였다. 이미 장기화한 내전으로 빈곤과 저개발의 악순환을 겪고 있던 미얀마가 쿠데타로 다시 위기를 맞자, 군부는 갑자기 야타이 그룹의 개발사업을 재개하도록 허락한다. 그렇게 다시 KK 파크는 활성화되었고, 인신 매매 및 스캠 범죄가 다시 성황을 이루게 된다(Ho et al., 2025: 1608-1610; Watanabe, 2026: 26-27).

그렇다면 왜 경제특구나 관광단지에 스캠 산업이 성행하게 된 것일까? 이는 디지털 기술의 혁신이 낳은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관광사업 자체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카지노든, 매춘이든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 있어야만 사업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금지되면서 다수의 카지노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중국인이거나 해외 관광객이 동남아시아에 오지 않아도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사업 개발이 너무나도 절실했던 것이다(Franceschini et al., 2023: 577-578). 온라인 사기는 국경을 넘는 초국가형 범죄이기 때문에 다국적 인구의 이동이 잦은 국경 지역이 유리하다. 특히 골든 트라이앵글이나 에메랄드 트라이앵글처럼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고,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취업의 기회를 잡기 위해 찾아 드는 지역에서 스캠 범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 비용으로 단기간에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성황을 이룬 것이다(Ruser, 2025: 8-9, 14-15).

그럼에도 국경 지역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군대와 경찰이 결집한 곳이기 때문에, 범죄 조직이나 사업에 대한 단속이나 통제가 즉각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다만 사이버 범죄 자체에 대한 인식이 국가마다 달라 현행법이나 기존의 국가 간의 협약으로 통제와 단속이 힘들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경 지역처럼 각국의 법령과 공권력 행사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곳에는 국가 간의 공조가 필수적인데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분쟁뿐만 아니라 스캠 범죄 단속에 있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는 양국의 협력이 요원하다.

무엇보다 국경 지역의 공권력을 행하는 자와 범죄 산업을 운영하는 자가 공조하게 되면 범죄 단속은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범죄 확산으로 인한 분쟁 역시 피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자본이나 네트워크로 시작한 불법 사업이 성장하고 초국가적 범죄로 확장되는 데에는 현지 유력자, 특히 군대와 경찰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지 군부와 경찰, 혹은 민병대 세력은 법 집행의 핵심 세력이지만, 이들이 외국 자본가나 현지 유력자와 결합하여 범죄 산업을 보호하는 후견인이자 사병이 된다면 그 지역은 그들에게 초국가적 무역 네트워크 거점을 보장해 주고, 공권력의 이름으로 범죄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해 주는 경제적 터전이 된다(Laungaramsri, 2024: 473-475; Ruser, 2025: 12-14, 18). 즉, 트라이앵글 지역에서의 초국가적 범죄 산업은 이미 국경지대에 몰려 있는 군대와 경찰과 같은 보안 세력에게 권력 유지를 위한 수익 모델이 된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 증오와 폭력과 같은 맹목적인 물리력과 창조적인 정

신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우연과 확률의 영역, 그리고 정책 도구로서의 인식이 결합한 산물이라고 보는데, 그중 군지휘관과 군대의 특성이 전쟁의 확률 및 우연의 영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1989: 89). 미얀마의 내전 상황과 캄보디아에서의 훈센 가문 장기 독재는 군부에게 국가안보 수호라는 임무를 자신의 권력 유지와 경제적 이해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즉,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군부가 사적 이익 보호를 위해 “창조적인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한 것이다.

V. 안보 위기의 수사 정치

2025년에 벌어진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분쟁이 1940년대 태국의 실지 회복주의 캠페인과 당시 프랑스 통치하 캄보디아를 연상시키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모든 사건들이 정권교체 혹은 지도자 교체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5년 재점화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 그리고 미얀마 국경 지역 내 스캠 사업 확장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스턴트’와 같은 급작스러운 단속은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국내 정치에서의 정권교체 시기와 교묘하게 맞물려 있어, 영토분쟁이 가진 정치적 효용성을 낱알이 보여준다.

2025년 5월 28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청복(Chong Bok)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자, 당시 총리였던 패팅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은 6월 15일에 훈센과 통화했는데, 훈센이 통화 내용을 6월 18일 공개한다. 훈센이 유출한 통화에서 패팅탄이 아버지 탁신 친나왓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훈센을 “삼촌”이라 부르며 태국의 군부 세력에 대해 불평했던 이유는 태국군의 무능력을 부각하여 국경 분쟁으로 인한 긴장 관계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노력에서 촉발되었다. 이에 패팅탄은 태국 국가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되고, 7월 1일 직무 정지 후, 8월 29일에 최종 해임당하게 된다.

오랜 친구로 여겨왔던 훈센의 배신에 탁신 친나왓은 훈센이 패팅탄을 위기로 몰아넣기 위해 억지 상황을 만들어 냈다면, 훈센과 가까운 캄보디아 거물들이 태국인을 겨냥한 카지노와 스캠 범죄를 장악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패팅탄

정부가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의 스캠 범죄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국경지대 카지노와 호화 빌라 등을 급습했는데, 훈센이 엮여있을지도 모르는 부정부패 네트워크를 건드려 훈센의 원한을 샀다는 것이다(Khaosod English, 2025/07/09; The Nation, 2025/06/27; Strangio, 2025). 그렇게 특정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빼이뻬 크라운(Crown) 카지노를 소유한 중국계 캄보디아 시민으로 도박업계 거물이자 캄보디아 상원 위원회 회장인 꼭 안(Kok An)이다(Takahashi, 2025).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접경지역에서의 관광산업 촉진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바로 옆 캄보디아의 반떼이 민찌이(Banteay Meanchey) 주에도 개발붐이 불었다. 1999년 꼭 안이 태국 국경 바로 맞은편에 있는 빼이뻬에 크라운 카지노 리조트를 연 이후 카지노와 호텔이 속속들이 들어섰고, 해외 관광객이 급격히 증대된다(The Nation, 2025/07/08). 그중 도박을 하기 위해 혹은 리조트나 카지노에 취업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태국인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다가 2022년에 19살의 태국 청년이 크라운 카지노에서 주검으로 발견되고, 2025년 휴전 상태에서도 빼이뻬에서 태국인 희생자가 계속 발견되면서, 꼭 안이 소유한 카지노 내 건물 안에서 운영되던 스캠 센터가 부각되기 시작한다(The Nation, 2025/11/14).

탁신의 폭로와 거의 동시에 태국 사법부는 7월에 꼭 안의 태국 국적을 박탈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11월 초 꼭 안의 사촌과 결혼하고, 캄보디아의 상원의원이 된 또 다른 카지노 대부 리용팻(Ly Yong Phat)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한다(Thai PBS World, 2025/07/11; Ngamkham, 2025). 즉 탁신의 폭로와 함께 태국 정부는 국경 분쟁의 원인을 스캠 범죄를 양산하는 캄보디아로 돌리는 계기로 삼은 것이다. 탁신의 폭로 이후 태국 미디어는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사이, 특히 빼이뻬 지역의 스캠 산업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태국 정부 역시 스캠 범죄 단속의 강도를 높였다(Sriyai, 2025: 3, 8).

패팅탄과의 통화를 유출하면서 훈센은 자신을 먼저 배신한 것은 탁신가라고 호통을 치며, 이들이 스캠 범죄 진압을 빌미로 국경을 봉쇄하고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스캠 범죄의 중심지는 태국에 있고, 캄보디아는 피해자라는 태도를 고수했다(Cambodia Daily, 2025/11/06). 캄보디아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자금세탁을 주도하는 거물들의 거취를 파악하기 위해 태국 경찰이 국내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계 이주민 노동자들을 수사했던 것에 대해 훈센은 캄보디아인들에 대한 차별이자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Thai PBS World, 2025/07/09). 이렇듯 친나왓가와 훈센 간의 폭로전은 국경 분쟁의 핵심이 스캠 센터를 비롯한 국경 범죄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결국 패팅탄이 퇴출당하고,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 보수로 여겨졌던 품짜이타이(Bhumjaithai)당의 당수이자 부총리였던 아누틴 찬위라꾼이 유력한 총리 후보로 떠오른다. 패팅탄과 훈센의 통화가 공개되자마자 그는 패팅탄과의 연합 정부에서 탈퇴하였고, 아주 극적으로 2025년 9월 3일 태국의 진보당인 인민당(People's Party)과의 협상을 통해 조기 총선과 개헌을 받아들인다. 2025년 9월 5일 금요일, 태국에서는 새로운 총리 선출을 위한 의회 투표가 진행되었고, 다수가 예측했듯, 품짜이타이당의 아누틴 찬위라꾼이 32대 총리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9월 9일 화요일 탁신 친나왓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직후 수감되었다.

전 총리였던 패팅탄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까지 위기로 몰아넣은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은 아누틴에게 어려운 문제였다. 그 역시 훈센의 도발과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한 공개적 비난을 이어 나가는 동시에 친나왓가와 거리를 두려고 했다. 한편으로는 태국 동북부 지역 사령관인 분신 팻끌랑(Boonsin Padklang)과 같은 군부 세력이 캄보디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며 언제든지 전쟁 태세로 돌입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마치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듯 도발적 행동을 감행했고, 분신 팻끌랑이 인정했듯, 7월 말에 정전이 선포되고도 전투를 지속했다(The Nation, 2025/11/09). 군이 운영하는 미디어를 통해 태국인들의 민족주의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태국군 희생자에 대한 기사가 연달아 나오고, 가짜 뉴스 확산을 주도하는 극우 유튜버 프라이완 와나붓(Praiwan Wannabut)이나 깐 쯔팔랑(Gun Jompalang) 등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활용하고 있다(Sriyai, 2025).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국경 지역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해 귀신 소리와 헬리콥터 소리를 내보내는 등의 행동은 국내외의 비판을 불러왔고, 결국 태국군은 철거를 지시했다(Thai PBS World, 2025/10/19).

태국과 캄보디아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정전의 희망으로 부풀어 있던 사이 미얀마는 대대적인 스캠 범죄 소탕 작전을 시작했다.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

를 받았던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이 갑자기 중국 출신의 범죄 마피아 집단과 그들의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한 것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총선을 어떻게든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2025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미얀마 군정은 십 년 만에 전국 인구조사를 단행하는데, 2024년 12월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안보상의 이유로” 330개 읍면 중 145개 읍면에서만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Department of Population, 2024). 이는 군사정부와 척지고 있는 미얀마 국민이 57%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외 사회에서의 미얀마 군부의 폭정에 대한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12월에 총선을 치르기 위해 민 아웅 흘라잉은 국내외 문제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었고, 그 주요 대상이 바로 스캠 범죄였다.

2025년 9월 초부터 스캠 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들어갔고, 10월 중순에는 슈웨 꼭꼬(Shwe Kokko) 지역의 KK 파크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태국 팍(Tak)주의 메솿(Mae Sot) 지역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KK 파크에서 건물을 폭파하는 소리와 연기가 보이는 가운데 스캠 단지 노동자들의 탈출이 이어졌고, 이들은 모이(Moei)강을 건너 태국으로 건너왔고, 팍주에는 임시 대피처가 세워졌다. 미얀마 군부는 KK 파크에서 범죄행위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단속은 계속 이어졌지만, 실제로 단속 이후에도 KK 파크나 다른 스캠 센터 활동 역시 지속되면서, 단속 자체가 국내외 관심과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이어졌다(The Associated Press, 2025/10/29; The Irrawaddy, 2025/11/18).

결국 목적은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 지속성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얀마에서의 스캠 범죄 단속은 12월 총선 직전까지 이어졌다. 그러면서 스캠 범죄 단속을 핑계로 총선에 저항하는 지역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 동시에 진행되었다(Kavi, 2025). 선거 직후 국제연합 고등 인권 판무관의 발표에 따르면 선거가 진행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총 408차례의 폭격이 미얀마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7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선거 기간 전에도 총선 진행을 방해한다는 핑계로 400명 이상의 민간인이 구속되었다(UNHCR, 2025).

결국 모두가 예상했듯이 군이 장악한 통합단결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이 하원에서 총 263 의석 중 232석, 상원에서 총 157석 중 109

석을 차지했고, 4월에 열린 의회 선거에서 민 아웅 흘라잉은 584중 429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다(AFP and Reuters, 2026/04/03). 스캠 산업에 대한 보여주기용 단속은 민 아웅 흘라잉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작전이었고, 총선이 군부독재의 실질적 존속을 위한 도구였다는 점에서 정권교체 시기 안보 정치의 효용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38년간 캄보디아를 지배했던 전 총리 훈센으로부터 그의 아들 훈마넛으로의 정권 이양 과정에서 승계의 정당성 강화 및 훈센의 정치적 보존을 위한 노력들이 2025년 국경 분쟁 덕분에 오히려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9년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경제학 학·석사를 미국에서 받은 뒤, 2009년 영국 브리스톨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훈마넛은 아버지 훈센의 도움으로 군경력과 정치 경력을 차근차근 쌓다가,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총리직 승계를 위한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2023년 7월 총선으로 총리에 당선되고,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의 승인 과정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면서 정권 이양은 비교적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38년간의 훈센의 장기 집권을 끝내고 서구에서 교육받은 아들 훈마넛이 캄보디아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했지만,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가문정치의 공고화와 독재의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가 더 컸다(Travouillon, 2024; 박정연, 2026). 훈마넛이 집권한 첫 2년 동안 캄보디아의 인권상황은 더 악화했고,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역시 강화되었다(Human Rights Watch, 2025). 동시에 중국의 경제특구 개발사업의 확장으로 신종 엘리트가 등장했다. 시아누크빌의 악명높은 스캠 사업 대부였던 프린스 그룹의 천즈(Chen Zhi) 회장은 2020년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넥 옥냐(Neak Oknha, 통치자) 칭호를 받고, 훈센 총리의 공식 고문이 되었다. 2023년 총리가 된 훈마넛은 천즈 회장의 공식 고문 자리를 유지하게 한다(Steinhauser and Kowsmann, 2026).

2025년 태국-캄보디아 충돌은 훈마넛과 훈센에게는 위기 극복의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분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훈센은 친나왓 가를 태국의 배신자로 만들었고, 장남 훈마넛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훈마넛은 분쟁 해소 방법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와 같은 외부 개입을 고집하고 수차례 성명을 내놓으면서 국제사회에 젊고

합리적인 캄보디아 총리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었다. 2025년 10월 초 스캠 사업 한국인 피해자 사망 사건이 주목받을 당시 캄보디아에 파견된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의 면담에서 훈마넷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태국 총리를 질타했던 데에서도 훈마넷의 이미지 정치 의도가 잘 드러난다(구자룡, 2025). 그 사이 캄보디아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는 훈센의 분쟁 해소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국토와 주권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8월 2일에는 캄보디아 추밀원장인 훈센에게 캄보디아의 군사, 국가 방위, 주권, 영토 보전과 관련된 사항을 감독할 전권을 부여했다(Khmer Times Team, 2025/08/05; Cambodianess, 2025/06/27). 훈마넷도, 훈센도 태국과의 국경 분쟁을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쇄신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활용한 것이다.

국경 분쟁의 원인이자 동력으로 스캠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훈센과 훈마넷은 중국뿐만 아니라 초국가 범죄기업들의 활동을 제재하지 않은 대가로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범죄 사업 연루자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스캠 범죄를 차단하는 강력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실제로 범죄 현장을 수차례 급습하고 수백 명을 체포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한 급습이 끝나고 나면 스캠 센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다(Franceschini and Li, 2025). 시아누크빌 스캠 산업의 주요 인물이었던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은 체포된 뒤 중국으로 송환되었지만, 여전히 훈센과 가까운 캄보디아 상원의원 꼭 안과 리용팻은 구속당하지 않았고,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연루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Nimol and Thaney, 2026; Steinhauser and Kowsmann, 2026).

결국 국경 분쟁이든 범죄든 집권층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과시하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력을 지지하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네트워크와 자원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분쟁과 범죄가 지속될 수 있었다. 클라우제비츠는 정치적 목표는 오직 정부 소관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정치의 주체가 정부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가 정하고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가 범죄와 분쟁의 상황에서 국민과 군부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이를 동력으로 정부의 어젠다를 실현하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결국 전쟁도 정책의 연속이라는 것이다(1989: 89).

VI. 결론: 국경 분쟁과 범죄 정치의 역사

지금까지 태국과 미얀마,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을 둘러싼 영토성에 기반한 국수주의, 내전과 같은 혼란을 이용한 군부의 지하 경제, 그리고 안보 위기에 의존한 정부의 수사 정치라는 세 요소가 미얀마-태국-라오스 접경지역의 골든 트라이앵글, 태국-캄보디아-라오스 접경지역의 에메랄드 트라이앵글에서의 분쟁과 범죄를 어떻게 지속시켜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국, 트라이앵글 지역에서의 분쟁과 범죄를 지속하는 국민, 군부, 정부 삼위일체의 정점에는 “정치”가 있었다.

식민 열강 간의 영토경쟁으로 그려진 제국의 경계가 민족국가의 국경선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루어졌다. 태국의 피분 송크람 총리가 주도했던 실지회복주의 캠페인이 이를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과정의 주요 동력은 반식민주의와 영토성에 기반한 민족주의로 무장한 “국민”이었다. 시암의 종속인이 아닌 태국의 국민으로 재탄생한 타이인은 서구 식민 열강 간의 경쟁으로 잃어버렸다고 믿어지는 영토를 되찾기 위해 피분 송크람이 주도한 실지회복주의 캠페인을 열정적으로 지지했고, 태국 군부는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태평양 전쟁 시기 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일부분을 태국 영토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국수주의적 영토 회복 노력은 서구 식민 열강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주변국들에 대한 적대감, 혹은 우월의식에 기반했지만, 이들이 거리로 나가기까지는 지도자의 적대적 의도를 민족적 공감대로 확장하려는 정부의 의식적 노력이 존재했다.

초국가적 교역지대로 존재했던 트라이앵글 지역이 국경 분쟁과 범죄의 거점이 된 주요 원인은 이 지역에서의 교역과 무역을 지속함으로써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권력까지 장악할 수 있었던 군부 세력의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골든 트라이앵글은 중국과 남아시아의 무역 중계지에 있었고, 아편과 같은 환금성 작물의 재배, 유통, 판매가 집중된 접경지역이다. 이 접경지역에 정부가 배치한 군과 경찰, 민병대 등은 지역경제의 특수성을 활용해 자신들만의 권력 유지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유지해 왔다. 특히 내전과 같은 위기 시기에 더욱더 활성화되는 지하 경제는 오히려 군대, 경찰, 민병대와

같은 공인된 무장세력과의 공조로 빠른 시간 안에 방대하게 확장될 수 있었다. 미얀마가 독립을 선포한 1948년부터 본격화한 버마 다수민족 대 비버마 소수민족 간의 충돌이 초국가적 온라인 사기 범죄를 확대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데에서 드러나듯 군부 장기독재의 힘은 총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한 지하 경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국수주의를 강화하고 군부 지하 경제의 양성화를 묵인하게 하는 주요 요소는 당대의 정치적 어젠다라고 할 수 있다. 태국과 미얀마는 2025년에 주요 총선을 치러야 했고, 캄보디아는 2년 넘게 증명되지 않은 훈마넷 총리의 집권 연장을 위한 이미지 쇄신이 시급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에서 맹비난을 받아온 민 아웅 흘라잉 정부는 늦게나마 총선 실시를 통해 미얀마의 국제적·국내적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아버지와 친한 훈센 총리에게 “삼촌”이라 부르고 총리직을 잃은 패딩탄과 감옥으로 가야 했던 탁신은 친나왓 가문정치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태국-캄보디아 분쟁에 관한 관심을 스캠 사업으로 돌려야 했다. 그렇게 훈센과 훈마넷이 깊숙하게 연루된 정경 유착의 비리를 부각함으로써 패딩탄의 통화가 초래한 군부와의 불화와 국민들의 반감을 상쇄한 것이다. 국경 범죄가 국가 간 전쟁의 원인이 되고, 그 결과가 되어버린 데에는 정권교체 혹은 유지를 위한 정치세력 간의 수사 정치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국경 지역에서의 분쟁과 범죄를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은 “정치”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결코 자율적인 현상이 아니라 항상 정책의 수단으로 여겨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전쟁은 전쟁 그 자체의 동기와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역시 강조했다(1989: 88). 식민주의 시대 그어진 제국의 경계가 민족국가의 국경이 되면서 국경 분쟁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지만, 이를 지속시킨 것은 결국 당대의 해당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어젠다이고, 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이는 국경 분쟁과 범죄의 기원과 지속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경 지역이라는 공간의 역사와 더불어 그 시대의 정치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함의를 남긴다.

19세기 유럽의 군사 전문가가 제안한 전쟁론을 21세기 동남아시아 접경지역에서 분쟁과 범죄의 공생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클라우제비츠의 역설적 삼위일체론은 지역과 시대를 관통하는 전쟁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19세기 말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 서구의 식민 통치가 본격화하면서 국경선이 그어졌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혼란과 충돌은 아직도 범죄와 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요소로 남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시기에 일어난 국경 분쟁이 그 지역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과 그 역사적 유산을 활용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 정치적 세력은 군부나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이 될 수도 있다. 이 세 개의 주체자의 행위와 목표를 전쟁의 시작과 유지의 요소로 규정한 것이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론이다. 이 논문은 그 분석 틀을 활용해 대륙부 동남아시아에 존재하는 국경 범죄와 분쟁의 공생관계를 밝힘으로써 전쟁의 본질은 결국 정치라는 인위적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결국 국경 범죄와 분쟁의 공생관계는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의 특수성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국경이라는 개방성과 폐쇄성이 공존하는 공간의 보편성으로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었다. 범죄와 분쟁과 같은 이해관계의 집합과 충돌이 국경이라는 공간 안에서 필연적임을 인지하는 것은 향후 동남아시아에서의 국경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 경제적·문화적 교류 등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 필연성은 역사가 보여주는 보편적 경험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투고일: 2026년 6월 2일 | 심사일: 2026년 7월 4일 | 게재확정일: 2026년 7월 31일

참고문헌

- 스콧, 제임스 C. 이상국 옮김. 2015. 『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동남아시아 산악지대 아나키즘의 역사』. 서울: 삼천리.
- 클라우제비츠, 카를 폰. 류제승 옮김. 1998. 『전쟁론』. 책세상.
- Barmé, Scot. 1993. *Luang Wichit Wathakan and the Creation of a Thai Identity*. Singapore: ISEAS.
- Briggs, Lawrence Palmer. 1946. "The Treaty of March 23, 1907 Between France and

- Siam and the Return of Battambang and Angkor to Cambodia.” *The Far Eastern Quarterly* 5(4): 439-454.
- Buchanan, John. 2016. *Militias in Myanmar*. The Asia Foundation.
- Chang, Wen-Chin. 2002. “Identification of Leadership among the KMT Yunnanese Chinese in Northern Thailand.”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33(1): 123-146.
- Chunhawan, Phin. 1973. *Anuson nai ngan phraratchathan phloengsop chom phon Phin Chunhawan* [In memoriam to the royal-sponsored cremation ceremony of General Phin Chunhawan]. Bangkok: Arun Karn Phim.
- Clausewitz, Carl von. 1989. *On War*.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ed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lood, E. Thadeus. 1969. “The 1940 Franco-Thai Border Dispute and PhibunSongkhram’s Commitment to Japan.”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10(2): 304-325.
- Forbes, Andrew D. W. 1987. “The ‘CIN-HŌ’ (Yunnanese Chinese) Caravan Trade with North Thailand During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Journal of Asian History* 21(1): 1-47.
- Franceschini, Ivan, Ling Li, and Mark Bo. 2023. “Compound Capitalism: A Political Economy of Southeast Asia’s Online Scam Operations.” *Critical Asian Studies* 55(4): 575-603.
-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25. *Compound Crime: Cyber Scam Operations in Southeast Asia*.
- Hatsukano, Naomi. 2012. “Will the Emerald Triangle Development Cooperation Be Reactivated?: The Silent Cooperation Scheme between Cambodia, Lao PDR and Thailand.” In Masami Ishida, ed. *Five Triangle Areas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edited by Masami Ishida, BRC Research Report No. 11, 32-55. Bangkok: Bangkok Research Center, IDE-JETRO.
- Hinton, Alexander. 2006. “Khmerness and the Thai ‘Other’: Violence, Discourse and Symbolism in the 2003 Anti-Thai Riots in Cambodia.”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37(3): 445-468.
- Ho, Selina, Xue Gong, and Carla P. Freeman. 2025. “China’s Interventions in ‘Gray Special Economic Zones’ in Southeast Asia’s Borderlands.” *Journal of*

- Contemporary China* 35(159): 1600-1616.
- Im, Soksamphoas. 2026. "Thai-Cambodian Dispute: Differing Configurations of Nationalism and Legitimacy." *Fulcrum* (Jan 21).
- Ishida, Masami. 2012. "Development of Five Triangle Areas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In Masami Ishida, ed. *Five Triangle Areas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BRC Research Report No. 11, 1-31. Bangkok: Bangkok Research Center, IDE-JETRO.
- Kasetsiri, Charnvit. 1974. "The First Phibun Government and its Involvement in World War II." *Journal of the Siam Society* 62(2): 25-88.
- Kaufman, Victor S. 2001. "Trouble in the Golden Triangle: The United States, Taiwan and the 93rd Nationalist Division." *China Quarterly* 166: 440-456.
- Laungaramsri, Pinkaew. 2024. "Dark Zomia: Myanmar-Thai Frontier and the Chinese Enclosur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rma/Myanmar Studies, Chiang Mai. August: 463-478. https://icbms4.burmaconference.com/pdf_proceeding.php?abs_id=251 (검색일: 2026. 5. 14.).
- McCoy, Alfred W. 2003. *The Politics of Heroin: CIA Complicity in the Global Drug Trade*. rev. ed. Chicago, IL; Lawrence Hill Books.
- Michaels, Morgan. 2023. "Operation 1027 reshapes Myanmar's post-coup war." *IISS Myanmar Conflict Map*, November.
- Numnonda, Thamsook. 1978. "PhibunSongkhram's Thai Nation-Building Programme during the Japanese Military Presence, 1941-1945."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9(2): 234-247.
- Ruser, Nathan. 2025. *Scamland Myanmar: How conflict and crime syndicates built a global fraud industry*.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Shawcross, William. 1985. *The Quality of Mercy: Cambodia, Holocaust, and Modern Conscience, with a report from Ethiopia*.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riyai, Surachanee. 2025. "Borderland Scam Centres and Cyber Threats: Policy Considerations for Thailand." *ISEAS Perspectives* no. 60 (August 19).
- Strate, Shan. 2015. *The Lost Territories: Thailand's History of National Humilia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Terwiel, B. J. 1991. "Thai Nationalism and Identity: Popular Themes of the 1930s." In Craig J. Reynolds, ed. *National Identity and Its Defenders, Thailand*

1939-1989, 108-125. Victoria, Australia: Aristoc Press Pty. Ltd.

Watanabe, Kota. 2026. "Behind the Scam Cities: Armed Brokerage in the Myanmar-Thai Borderland." *Critical Asian Studies* 58(1): 9-40.

기사 및 일차 자료

구자룡. 2025. "캄 훈마넛 총리, 김진아 차관 면담때 "泰 총리 자기 일이나 하라" 언급 왜?" 뉴시스(10월 17일).

박정연. 2026. " '포스트 훈센' 캄보디아의 딜레마... "가문 정치에 갇힌 훈마넛 리더십"." 오마이뉴스(2월 4일).

AFP and Reuters. 2026. "Myanmar's coup leader elected president by pro-military parliament." *Aljazeera* (April 3).

Alderman, Petra. 2025. "Thailand and Cambodia's escalating conflict has roots in century-old border dispute." *The Conversation* (July 24).

BBC. 2009. "Clashes on Thai-Cambodian border." *BBC* (April 3).

Cambodia Daily. 2025. "Hun Sen Says Thai Politicians Using Border Issue for Election Campaigns." *Cambodia Daily* (November 6).

Cambodianess. 2025. "King Sihamoni Praises Hun Sen's Patriotism Amid Border Tensions." *CamNess* (June 27).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kromsetthakit rawang prathet*]. 2022. "Emerald Triangle Cooperation [*kbuaam ruam mu samliam morakot*]," entered on April 18, 2012, updated November 30. [https://business.mfa.go.th/th/content/16229-%E0%B8%AA%E0%B8%B2%E0%B8%A1%E0%B9%80%E0%B8%AB%E0%B8%A5%E0%B8%B5%E0%B9%88%E0%B8%A2%E0%B8%A1%E0%B8%A1%E0%B8%A3%E0%B8%81%E0%B8%95\(-emerald-triangle-\)?cate=5d73a21d15e39c36a8006c2b](https://business.mfa.go.th/th/content/16229-%E0%B8%AA%E0%B8%B2%E0%B8%A1%E0%B9%80%E0%B8%AB%E0%B8%A5%E0%B8%B5%E0%B9%88%E0%B8%A2%E0%B8%A1%E0%B8%A1%E0%B8%A3%E0%B8%81%E0%B8%95(-emerald-triangle-)?cate=5d73a21d15e39c36a8006c2b) (검색일: 2025. 11. 9.).

Department of Population, Ministry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 2024. "2024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Provisional Results." <https://dop.gov.mm/en/publication-category/2024-provisional-result> (검색일: 2026. 3. 29.).

Ewe, Koh and Jonathan Head. 2025. "Thailand extradites owner of Myanmar scam city to China." *BBC* (November 12).

Franceschini, Ivan and Ling Li. 2025. "Cambodia is vowing to 'rid' the country of scam compounds. But we've seen several still operating in the open." *The*

- Conversation* (August 8).
- Human Rights Watch. 2025. "Cambodia: Hun Manet Drastically Curtails Rights." *Human Rights Watch* (January 16).
- Justice for Myanmar. 2024. "The Karen Border Guard Force/Karen National Army Criminal Business Network Exposed." *Justice For Myanmar* (May 22).
- Kavi, Maung. 2025. "Myanmar Junta Boss Vows to 'Eliminate' Scam Centers Amid Rising Global Pressure." *The Irrawaddy* (November 17).
- Khaosod English. 2025. "Thaksin Breaks Silence on Hun Sen Orchestrated Recording," *Khaosod English* (July 9).
- Khmer Times Team. 2025. "King Sihamoni authorises Hun Sen to lead national defence coordination amid escalating border tensions." *Khmer Times* (August 5).
- Lintner, Bertil. 2022. "Guide to Investigating Organized Crime in the Golden Triangle – Introduction." *Global Investigative Journalism Network* (November 28).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ingdom of Thailand. 2025. "Press Release on the Findings of the ASEAN Observer Team regarding the Landmine Incident in the Phu Makua area, Si Sa Ket Province, on 10 November 2025." November 24. <https://www.mfa.go.th/en/content/findings-asean-observation-team-10-nov-2025-en?cate=5d5bcb4e15e39c306000683e&menu=5d5bd3da15e39c306002aafa> (검색일: 2026. 5. 4.).
- Ngamkham, Wassayos. 2025. "Thai court issues warrant for arrest of Cambodian senator." *Bangkok Post* (November 10).
- Nimol, Seoung and Try Thaney. 2026. "Chaos During Scam Raids Exposes Gaps in Crackdown, Specialists Say." *Camboja News* (May 13).
- Pongsudhirak, Thitinan. 2011. "Domestic determinants of the Thai-Cambodian dispute." *East Asia Forum* (May 18).
- Regan, Helen and Kocha Olarn. 2025. "Thailand 'halts' peace agreement with Cambodia hailed by Trump after landmine explosion injures troops." *CNN World* (November 12).
- Reuters. 2025. "Land mine dispute escalates tensions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The Japan Times* (July 22).
- Schearf, Daniel. 2012. "Chinese Company Bets Big on Laos Casino Project." *VOA*

- News* (April 30).
- Sriyai, Surachanee. 2025. "Gun Jomपालang: The Grey Zone of Influencers and Warfare in the Thai-Cambodia Conflict." *Fulcrum* (Dec 5).
- Steinhauser, Gabriele and Patricia Kowsmann. 2026. "How Cybercrime Became a Leading Industry in 'Scambodia'." *Wall Street Journal* (April 19).
- Strangio, Sebastian. 2025. "Thai Police Raid More Properties Linked to Cambodian Tycoon." *The Diplomat* (July 16).
- Takahashi, Toru. 2025. "Hun Sen's gamble: Why Cambodia ex-ruler turned on Thai ally Thaksin." *Nikkei Asia* (July 12).
- Thai PBS World. 2025. "Hun Sen calls for Thai probe into Thaksin following Kok An scandal." *Thai PBS World* (July 9).
- _____. 2025. "Fugitive Cambodian alleged scam boss Kok An wanted by Thai police." *Thai PBS World* (July 11).
- _____. 2025. "Army orders halt to 'sound war' against Cambodians in Sa Kaeo province." *Thai PBS World* (October 19).
- The Associated Press. 2025. "Stragglers from Myanmar scam center raided by army cross into Thailand as buildings are blown up." *The Asabi Shimbun* (October 29).
- The Irrawaddy. 2025. "After DKBA Sanctions and She Zhijiang's Extradition, Is Saw Chit Thu Next?" *The Irrawaddy* (November 13).
- _____. 2025. "Scam Workers Flee as BGF Vows 'Final War' on Shwe Kokko Scam Hub." *The Irrawaddy* (November 18).
- The Nation. 2025. "I was betrayed first": Hun Sen's livestream exposes rift with Thaksin." *The Nation* (June 27).
- _____. 2025. "Kok An: The kingpin of Poipet linked to Cambodian former leader." *The Nation* (July 8).
- _____. 2025. "Boonsin admits defying govt's ceasefire order shortly after border clashes began." *The Nation* (November 9).
- _____. 2025. "Revealed: Thai woman, 26, dies tragically in Cambodia – insider says she was nearly cremated." *The Nation* (November 14).
- Travouillon, Katrin. 2024. "Democracy remains a waiting game under Cambodia's Hun Manet." *East Asia Forum* (January 23).

- United Nations. 2013. "UN court rules for Cambodia in Preah Vihear temple dispute with Thailand." *UN News* (November 11).
-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R). 2025. "Myanmar: Türk says military-controlled ballot exacerbates violence and social division." *United Nations Media Center* (January 30).
- Wee, Sui-Lee. 2025. "Khmer Rouge-Era Land Mines Have a Big Role in Thailand-Cambodia Conflict." *New York Times* (December 10).
- Wongcha-Um, Panu and Devjyot Ghoshal. 2025. "Land mines that sparked Thai-Cambodia clash were likely newly laid, experts say." *The Japan Times* (October 16).

Abstract

Triangle Trinity: The History and Politics of Conflicts between Myanmar, Thailand, and Cambodia

Sinae Hyun Inha University

Recent Thailand-Cambodia border disputes and the scam industry have garnered major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vealing not-so-secret connections between criminal activities and domestic politics in Thailand, Cambodia, and Myanmar. This article analyzes the complex history and politics of the ‘Golden Triangle’ (Myanmar, Thailand, and Laos) and the ‘Emerald Triangle’ (Thailand, Laos, and Cambodia) using the framework of Carl Von Clausewitz’s “paradoxical trinity.” After a brief survey of the history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two triangles, the study proceeds to examine ultranationalism in the people ignited and expanded by irredentist movements, the military’s use of the underground economy to sustain their power in the border regions, and the rhetorical politics of the governments during the security crises from the colonial period to the digital age. Building on the analysis, the conclusion part highlights the role of politics above the trinity of the people, the military, and the government in perpetuating the conflicts and crimes in the overlapping border areas.

Keywords | Golden Triangle, Emerald Triangle, Paradoxical Trinity, Border Disputes, Scam Crimes

